

安軸의 「關東別曲」과 宋詞의 비교연구를 통한 景幾體歌의 形成過程 연구

李 耕 百 *

<目次>

- | | |
|----------------|----------------|
| I. 서론 | IV. 「關東別曲」과 宋詞 |
| II. 景幾體歌와 關東別曲 | V. 景幾體歌의 形成 |
| III. 宋詞의 전래 | VI. 결론 |

<국문 초록>

景幾體歌는 고려후기에 발생하여 조선중기까지 이루어졌다. 27수가 남아있는 경기체가 중에 「翰林別曲」과 더불어 安軸의 「關東別曲」은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宋詞의 고려 유입, 宋詞와 「關東別曲」의 관계를 살피고, 「關東別曲」과 宋詞를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경기체가의 근원과 형성과정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宋詞는 송나라에 盛行한 장르이다. 宋詞는 고려 때에 한국에 유입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宋詞의 곡조나 가창은 고려문인들로서는 소화하기 어려운 난관이었다. 宋詞의 창작에도 힘을 기울였지만 그 난관의 대안으로 경기체가를 고안하게 된 것이다. 宋詞의 對案인 경기체가를 통해서 속요와는 차별화된 品格詩歌를 과시할 수 있었고, 宋詞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음악적 욕구를 고려의 곡조로 즐길 수 있었다.

본고는 형식과 수사를 통해서 「關東別曲」과 宋詞를 구체적으로 비교한다.

* 공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 lgb-2527@daum.net

형식에서 長短句와 前後 兩節을 통해서 양자의 유사성을 파악한다. 장단구와 전후 양절에서 유사한 원인은 양자의 음악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사에서 用典과 對偶를 통해서 양자의 유사성을 파악한다. 「關東別曲」과 宋詞가 이렇게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비교 문학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비교 연구로써 경기체가의 근원과 형성과정에 宋詞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주제어】 경기체가, 송사, 관동별곡, 유사성, 형성과정

I. 서론

경기체는 고려후기에 발생하여 조선중기까지 이루어진 詩歌 장르다. 지금까지 경기체의 작품들은 27수¹⁾가 남아있지만 한국 古典文學史上 간과할 수 없는 詩歌 영역이다.

景幾體歌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조금은 소외된 영역이어서 아직 學界에서 경기체의 근원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형편이다. 이병기²⁾, 조동일³⁾, 김문기⁴⁾ 등은 한국 詩歌 기원설을 제기했다. 김준영⁵⁾, 박성의⁶⁾, 김택규⁷⁾ 등은 중국 詩歌(주로 宋樂, 宋詞) 기

1) 2008년 김영진 교수가 이복로(1469~1533)의 두 작품, 「華山別曲」과 「龜山別曲」을 신발견 자료로 소개하였다.(김영진, 「신발견 자료: 龜村 李福老의 경기체가-「花山別曲」과 「龜嶺別曲」, 『한국시가연구』 25집, 한국시가학회, 2008, pp.347-360.) (김선기, 『고려가요의 해석과 이론』, 역락, 2013, p.184. 재인용.)

2) 이병기·백철 공저, 『국문학전사』, 일성당서점, 1955.

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83.

4) 김문기, 「경기체가의 종합적 연구」, 『한국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1.

5) 김준영, 「경기체가와 속가의 성격과 계통에 관한 고찰」, 『고려가요 연구』, 정음사, 1979.

6) 박성의, 『한국가요문학론과 史』, 집문당, 1986.

7) 김택규, 「별곡의 구조」, 『고려시대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75.

원설을 제기했다. 조윤제⁸⁾, 이명구⁹⁾, 김동욱¹⁰⁾ 등은 위의 두 기원설을 절충하는 방안을 제기했었던 정도이다.

中國 詞文學은 唐나라 때부터 발생했지만 宋나라 때 盛行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宋詞라고 한다. ‘唐詩’와 ‘宋詞’는 雙絶이라고 並稱해 와서 中國詩歌文學史上 아주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詞文學은 고려 때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그런데 곡조나 章句 등의 문제 때문에 宋詞 창작은 한국 사람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宋詞의 轉入이래 적지 않게 지어졌지만 曲調, 歌譜를 이해하고 지어진 작품은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고려의 작가들은 대부분 가사만 지었을 뿐, 정작 노래로 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景幾體歌가 지어진 것은 이러한 사정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들은 인연적인 관계가 있어 보이고, 이들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경기체가와 근원과 형성 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교 연구의 실천으로 대표적인 경기체가인 「關東別曲」을 예를 들어서 살펴볼 것이다. 경기체가 중에 효시 작품은 「翰林別曲」이지만 학계에서 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關東別曲」을 대상 작품으로 선정한다. 「關東別曲」은 安軸이 강릉 일대를 돌아보고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關東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한 것이다. 전체 9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關東 지방의 아름다운 경치들에 대한 흥취,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했다. 鄭澈의 「關東別曲」에 비하면 소략하지만 문학적인 수단으로는 분명히 「翰林別曲」을 능가한다.

그동안 學界에서 경기체가가 宋詞에서 기원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 이에 「關東別曲」과 宋詞를 비교함으로써 경기체가와 宋詞의 인연을 밝히고, 경기체가의 근원과 형

8) 조윤제, 『한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63.

9) 이명구, 『고려 가요의 연구』, 신아사, 1973.

10) 김동욱, 『국문학개설』, 보성문화사, 1985.

성과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II. 景幾體歌와 關東別曲

景幾體歌는 고려 고종 때¹¹⁾에 처음 나타난 연장체 시가이다. 이는 ‘景幾何如’라는 후렴구에서 따온 말이다. 景幾體歌의 分章의 수는 일정하지는 않지만 매 분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정형률을 유지한다.

3 · 3 · 4
 3 · 3 · 4
 4 · 4 · 4
 위 ~ ㅅ 景 ㅅ 엇더흐니잇고
 4 · 4 · 4 · 4
 위 ~ ㅅ 景 ㅅ 엇더흐니잇고

경기체가 는 후렴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찬양이나 과시의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전반부에서 대상의 부분들을 나열함으로써 고조된 분위기는 후렴구의 감탄으로 통합되고 있다. 경기체가에서 찬양되는 대상은 주로 이념의 확인을 위하여 선택된 것들인데 이 대상의 차이에 따라 내용도 나뉘어진다. 현존하고 있는 작품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사대부 세계의 긍정적 가치관, 자연 친화, 체제에 대한 찬양, 불교의 진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關東別曲」은 고려 충숙왕 17년(1330) 安軸¹²⁾이 지은 경기체가이고,

11) 경기체가의 효시 작품은 「翰林別曲」이라고 알려져 있다. 창작 시기는 고려 고종(1215년) 때로 추정된다.

12) 安軸(1282~1348): 고려 후기 문신이다. 竹溪[지금의 풍기]에서 세력기반을 가지고 중앙에 진출한 新興士大夫의 한 사람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金州司錄·司憲糾正·丹陽府注簿를 지내고, 1324년에 원나라 제과에도 급제했다. 그의 저작 『謹齋集』에 多量の 漢詩가 있다.

그의 문집 『謹齋集』 권2에 수록되어 있다. 작자가 44살 때 江原道存撫使로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관동지방의 뛰어난 경치와 유적 및 風物에 감흥을 받아 지었다.

1장은 작품의 序詞로서 위풍당당하게 巡察하는 모습을 묘사하였고, 2장은 鶴城을, 3장은 叢石亭을, 4장은 三日浦를, 5장은 永郎湖를, 6장은 襄陽의 아름다운 경관을, 7장은 臨瀛을, 8장은 竹西樓를, 9장은 旌善을 노래하였다. 이런 風景을 통해서 안축은 자연에 대한 흥취를 주관적으로 여과시키고 관념화하여 나열함으로써 그 美感을 절도 있게 표현했다. 사대부 특유의 세계관을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관동지방 일대는 옛날부터 경치가 아름다워 많은 시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따라서 그 절경을 노래한 작품 역시 적지 않다. 安軸의 이 작품은 경기체가라는 새롭게 창안된 가요 형식을 빌어 관동 일대의 명승지를 詩化하였다. 작자의 나이 44살이라면 한창 문학적으로 성숙한 경지에 이른다. 그와 어울리게 관동 각지의 명승과 민풍이 작가의 도도한 필치로 유려하게 제시되어 있다.

경기체가 중에서 「翰林別曲」과 「關東別曲」은 대표적인 작품이다. 「翰林別曲」이 공동 창작으로서 내용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關東別曲」은 개인의 서정시가로서의 원숙한 작품으로서의 가치도 함께 지닌다.

Ⅲ. 宋詞의 전래

宋詞란 중국 宋나라의 詞文學의 총칭이다. 詞文學은 비록 宋으로 대표되지만 宋代에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고, 唐나라 때부터 많은 문인들에 창작된 歌唱文學의 일종이다. 宋詞는 唐詩에 대하여 新體詩歌라고 한다. 宋代에 盛行한 文學體裁로서 宋代 문학의 대표적 장르이다. 歌唱을 위한 시가이므로 曲子詞³⁾라고 하고, 문장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서 長短句라고도 하고, 唐詩 형식의 정형성에서 벗어났으므로 詩余¹⁴⁾ 라고도 한다.

詞는 燕樂¹⁵⁾에 맞추기 위해서 창작한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燕’자는 원래 ‘宴’자와 相通한다¹⁶⁾. 燕樂은 酒宴을 벌일 때에 이용된 助興音樂이다. 詞의 題材는 다양하지만 사대부 문인들이 쓴 宋詞는 주로 즐거움과 향락의 정서를 위주로, 도시의 변화함이나 황제의 생활과 기상, 사대부들의 향락 생활을 노래한 작품들이 많았다.

宋詞는 문장의 장단으로 구분하여 小令·中調·長調로 나눈다. 小令¹⁷⁾은 58자 내외이고, 中調¹⁸⁾는 59~90자 내외, 長調¹⁹⁾는 91자 이상이다. 그리고 1연만 있는 宋詞를 單調라고 하고, 2연으로 나눈 宋詞는 雙調라고 한다. 3~4연으로 나눈 宋詞는 三疊, 四疊이라고 한다.

宋詞 악보의 이름을 詞牌²⁰⁾라고도 한다. 이 詞牌는 詞의 내용과 관련

13) 曲子詞: 곡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가사로 지은 詩歌.

14) 詩余: 詞의 별칭이다. 詞는 시가에서 발전해 와서 원나라 이후 문인들은 詞를 詩余로 부른다.

15) 중국 고대 음악사에서 크게 세 가지 음악 체계가 있다. 漢·魏 이전의 ‘雅樂’과 漢·魏 시기의 ‘清(商)樂’과 隋·唐 이래의 ‘燕樂’이 그것이다. (楊海明, 『唐宋詞史』, 新雅社, 1995, p.61. 참고.)

16) 許慎, 『說文解字』, “燕, 古多爲宴, 宴安, 宴享.”

17) 小令: 詞의 양식 중 일반적으로 58자 내외의 단편을 가리킨다. 당나라 酒令 [酒宴]에서의 즉흥시에서 유래한다. 唐詩의 絕句나 민간가요류가 반주음악에 의해 변화하여, 문인들의 손을 거쳐 각종 소령 형식으로 정착된 것이다. 唐末로부터 北宋에 걸쳐 가장 널리 유행했다.

18) 中調: 詞調 形式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小令과 長調 중간의 詞를 가리킨다.

19) 長調: 慢詞라고도 한다. 글자 수가 많고, 구양수, 장선 등이 시험 창작을 하였고 후세 사람들에 이르러 창작이 성행하였다.

20) 詞牌의 이름에는 따지면 3가지 情況이 있다. 첫 번째, 詞牌는 樂曲의 名稱이다.(예를 들면, 「菩薩蠻」·「西江月」·「蝶戀花」 등.) 두 번째, 한 수 詞 중 에 있는 몇 글자를 골라서 詞牌로 한다.(예를 들면, 「秦樓月」·「憶江南」 등.) 세 번째, 詞의 제목을 詞牌로 한다.(예를 들면, 「踏歌詞」·「舞馬詞」·「更漏子」 등.)

이 있을 수 있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詞牌는 일정한 曲調의 이름이다. 각 다른 詞牌[歌譜]에 따라서 송사의 형식도 다르다. 사가는 일정한 곡조인 詞牌를 선택하여 제목과 함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가사를 붙이는데 그것이 詞이다. 그러니까 詞는 詞牌 제목과 詞 제목이 따로 있는 셈이다.

韓·中 양국은 地理的으로 인접해 있다. 한국은 漢四郡 설립 이전부터 중국 문화를 수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詞文學은 唐나라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당나라와 신라는 교류가 아주 빈번했지만 詞가 신라로 유입되어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왜냐하면 『三國史記』에서 詞文學에 대한 기록이 없고, 신라의 유명한 漢學者 崔致遠의 문집에서도 詞文學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당나라 때 詞는 아직 主流文學이 아니었다. 그래서 詞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시기는 고려 때라고 하겠다.

宋나라(960~1279)는 962년(광종 13)에 이미 고려와 교류를 시작했다. 南宋이 멸망할 때까지 230여 회에 걸쳐 宋 商人이 고려에 來航할 정도로 교류가 왕성했고, 宋나라와 고려는 서로 使臣을 빈번하게 派遣한 것을 통해서도 고려가 宋나라의 문화를 많이 수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宋詞가 어느 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려에 전해졌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와 宋나라의 문화 교류를 통해서 宋詞는 고려에 차츰 유입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詞는 燕樂을 맞추기 위해서 창작한 것이었다. 燕樂이 고려에 전해지고 朝會와 宴會를 통해 歌詞를 창하는 燕樂이 연주됨으로써 사대부층에 점차 宋詞라는 운문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이다. 지금 한국에 남아 있는 최초의 宋詞에 대한 기록이 『高麗史』(卷71)의 「用俗樂節度」에 실려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종 27년 2월 을해일에, 교방에서 여제자 진경 등 13인이 전한 「踏莎行」 가무를 연등회에서 쓰기를 주청하자 법도로 정하여 그대로 따랐다.

그 해 11월 신해일에, 팔관회를 열고 왕이 신봉루에 친히 와서 악무를 관람하였는데, 교방에서 여제자 주영이 새로이 전한 「拋球樂」과 「九張機別伎」를 연주하였다. 「拋球樂」은 제자가 13인이고 「九張機別伎」는 10인으로 구성되었다.²¹⁾

위에 기록 중에 있는 「踏莎行」·「拋球樂」·「九張機別伎」 등은 모두 宋나라 때의 歌舞 曲名으로, 宋나라에서 파견된 악사가 고려에 와서 歌舞를 가르쳐 전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가무 곡명들은 다 詞牌名이고 가무 중에 歌詞는 宋詞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문헌에 남아있는 최초의 宋詞 수용에 대한 기록이다.

중국에서 성행했던 宋詞가 고려에 유입된 후에 상위문화를 추구했던 統治者·士大夫·學者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것은 宋詞가 고려에 전파·유행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다음은 예종(1079~1122)이 宋詞를 즐겨 지은 기록을 살펴보겠다.

예종 10년(3을미) 3월 임오, 왕이 여러 신하들과 건덕전에서 잔치하고, 「萬年詞」를 지어 좌우들에게 보여 주었다.

예종 10년(3을미) 4월 계축, 왕이 여러 왕씨와 重臣들을 상춘정으로 불러서 술 마시며 마음껏 노래 불렀다. 왕이 詞 두 곡조를 짓고 좌우를 시켜서 화답하여 바치게 하였다.²²⁾

봉건시대에서 王이 좋아하는 文學을 士大夫, 學者들이 追從·模倣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대를 대표하는 宋詞 作家는 李奎報²³⁾, 李齊賢²⁴⁾이다. 그리고 『樂章歌詞』에는 「風入松」·「紫霞洞」·「夜

21) 『高麗史』 卷71, 「樂志」, “文宗二十七年二月乙亥 教坊奏女弟子眞卿等十三人所傳踏沙行歌舞 請用於燃燈會 製從之”; “十一月辛亥 設八關會 御神鳳樓觀樂 教坊女弟子楚英奏新傳拋球樂 九張機別伎 拋球樂弟子十三人 九張機別伎十人.”

22) 『高麗史』, 「世家」, “睿宗10年(3乙未) 3月 壬午 宴群臣於乾德殿 賦萬年詞 宣示左右.”; “睿宗10年(3乙未) 4月 癸丑 召諸王宰樞於賞春亭 置酒極歌 制詞二闕 令左右和進.”

23) 李奎報의 문학이 다양하였음은 그의 문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십 여수의 詞 작품이 歌譜를 명시하면서 남아 있다. 따라서 당시에 문인들에게 이

深詞」 등이 실려 있어 宋詞의 盛行을 짐작할 수 있다.

IV. 「關東別曲」과 宋詞

한국의 詞文學은 대체적으로 고려 중엽부터 정착되면서 후기에 와서 李齊賢에 이르러 絶頂을 이루며, 조선조로 이어져 가지만, 다른 문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었다. 왜냐하면 詞를 창작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詞는 본질이 노래였기 때문에 가사를 짓기 전에 曲을 먼저 알아야 정상적으로 창작이 가능한 詩歌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漢詩와는 다른 것이었다. 李齊賢을 비롯한 소수의 詞人을 제외하면 대부분 詞의 본령을 지키지 못한 형편이었고, 그마저도 쉽게 흉내내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詞人의 저변이 넓지 못하였다. 宋詞의 곡조, 즉 歌譜²⁵⁾를 이해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歌譜, 詞牌에 따른 章句의 長短을 자유로이 구사하기가 어려웠다.

이처럼 宋詞 창작의 어려움으로 聽衆[讀者]에게는 더더욱 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宋詞는 당대에 가장 성행했던 장르여서 문인들이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宋詞를 土着化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前提로 학자들은 그 방법으로 宋詞의 틀을 유지하여 여요와 差別化

미 사문학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병주, 『漢文學史』, 새문사, 1998. p.166. 참고.)

24) 李齊賢(1287~1367)은 麗末을 대표하는 문장가이기도 하지만, 詞에 있어서도 한국 문학사에서 제1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그의 문집에는 長短句라 하여 한 권의 분량을 따로 남겨 놓았다. (이병주, 위의 책, p.169. 참고.)

25) 歌譜는 詞의 곡조, 악보를 가리킨다. 宋詞는 악보에 따라서 써야 한다. 정해진 악보를 詞牌라고 하는데 이는 아주 엄격한 歌唱文學이다. 宋나라 때 歌譜의 기록 방식이 아주 어려운 방법인 工尺譜로 기록했다. 이 工尺譜를 아는 사람은 거의 다 당시의 詞를 잘 부르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고려 시인들에게는 제대로 된 詞를 짓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詞는 대개 가사만을 갖추는 정도에 머물렀다.

하면서 고려의 음률을 살려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景幾體歌의 형식, 수사는 宋詞와 유사한 면이 많다는 것은 그 체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경기체가 후절이 송사와 다른 것은 토착화 시켰기 때문이다. 宋詞가 경기체에 훨씬 앞서있다는 점에서, 경기체가 작가들이 宋詞를 즐겨지었다는 점에서 경기체는 宋詞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

「關東別曲」을 그러한 관점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關東別曲」의 창작 시기는 宋詞의 유행 시기였었다. 양자의 작품구조를 고려하면 「關東別曲」과 宋詞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關東別曲」과 宋詞의 형식에서 현저한 특징은 長短句, 前後 兩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음악성과도 관련이 깊다. 노래 曲調의 장단에 따라서 歌詞의 글자 수를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關東別曲」과 宋詞의 長短句 形式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前後 兩節 구조도 그들의 음악적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前節과 後節은 악장의 구조로서 곡조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음악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쉬어갈 곳이 생기는데(호흡에 의한), 그러한 곳을 「關東別曲」과 宋詞의 兩節로 나누어서, 이러한 형식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제 形式과 修辭를 통해서 양자의 유사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形式

「關東別曲」과 宋詞는 形式에서 많은 유사점을 찾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長短句, 前後 兩節의 형식을 위주로 그들의 유사점을 살펴볼 것이다.

1) 長短句

長短句란 한 편의 詩歌 중에서 長句와 短句를 함께 사용한 시라는 뜻이다. 그 작품에서 매구의 자수가 전편에 걸쳐 일정한 자구의 漢詩와는

달리, 길이가 일정치 않다. 이 長短句는 「關東別曲」과 宋詞의 현저한 특징이자 유사점이기도 한다. 다음은 「關東別曲」 안에 있는 長短句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海千重 山萬疊 關東別境
碧玉幢 紅蓮幕 兵馬營主
玉帶傾蓋 黑槩紅旗 鳴沙路
爲 巡察景 幾何如
朔方民物 慕義起風
爲 王化中興景 幾何如 - 「關東別曲」 제1장²⁶⁾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 3, 4, 5 글자가 모두 있다. 이와 같이 「關東別曲」은 1장부터 9장까지 모두 長短句 형식을具備하고 있다.

宋詞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이름이 있다. 宋詞는 北宋 시기에 서부터 長短句라고 불려졌으나 宋나라 이후에 長短句는 宋詞의 別名이 되었다. 다음으로 宋詞의 長短句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錦筵紅 羅幕翠 待宴美人姝麗
十五六 解憐才 勸人深酒杯
黛眉長 檀口小 耳畔向人輕道
柳蔭曲 是兒家 門前紅杏花 - 「更漏子」²⁷⁾

張先의 「更漏子」(錦筵紅)이고, ‘更漏子’는 詞牌[곡조]의 이름이고 ‘錦筵紅’은 작품의 제목이다. 그러므로 宋詞는 곡조로서의 이름이 있을 수 있고, 가사로서의 제목도 있다. 이 작품은 3, 5, 6 글자가 있다. 이 작품

26) 임기중 외, 『경기체가연구』, 태학사, 1997, p.74.

27) “붉은 이부자리, 비취휘장 안에서 새신랑 기다리는 새 신부, 열다섯 꽃다운 나이 서러워 합환주 마신 얼굴 더욱 고와라. 검은 눈썹 길고, 앵두 입술 다물고서는 밖에서 속삭이는 사람들 소리에 귀 기울이는데, 유 골목에 살 구 꽃 피어있는 집이 내 집이네.” (김성수, 『生국문학』, 지식인, 2014, p.192. 참고.)

뿐만 아니라 모든 宋詞는 거의 다 마찬가지로 長句와 短句를 함께 사용한다. 宋詞는 한 句의 자수가 1자인 것부터 9자인 것까지 있으나, 3, 4, 5, 6, 7자가 가장 흔히 쓰인다.

2) 前後 兩節

前後 兩節은 「關東別曲」과 宋詞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關東別曲」에서 한 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앞부분은 긴 前大節이고 뒷부분이 짧은 後小節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처음에 나열하다가 ‘景(경) 이 엇더하니잇고’ 까지 前大節이고, 남은 부분은 後小節이다. 다음은 「關東別曲」 제9장을 통해서 前大節, 後小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江十里 壁千層 屏圍鏡澈
倚風巖 臨水穴 飛龍頂上
傾綠蟻 聳冰峯 六月清風
爲 避暑景 幾何如

(분절)

朱陳家世 武陵風物

爲 傳子傳孫景 幾何如 - 「關東別曲」 제9장²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關東別曲」의 제9장에서 처음부터 ‘爲 避暑景 幾何如’까지는 前大節이고 남은 ‘朱陳家世 武陵風物 / 爲 傳子傳孫景 幾何如’는 後小節이다. 경기체가의 모든 작품들은 모두 이러한 구조로 되어있다. 그리고 前大節과 後小節은 가창의 방법이 다를 수도 있다. 宋詞도 일반적으로 前, 後節로 이어진다²⁹⁾. 宋詞의 兩節은 兩片, 兩闕라고도 한다. 다음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宋詞의 兩節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8) 임기중 외, 앞의 책, p.76.

29) 宋詞 중에 절로 나누지 않고 한 절로 쓴 작품이 있고, 3절, 4절로 나눈 작품도 있지만 양이 아주 적다. 대체적으로 다 전·후 절로 나눈다.

小徑紅稀，芳郊綠遍，高臺樹色陰陰見。
春風不解禁楊花，濛濛亂撲行人面。

(분절)

翠葉藏鶯，朱簾隔燕，爐香靜逐遊絲轉。
一場愁夢酒醒時，斜陽卻照深深院。 - 「踏莎行」³⁰⁾

위에서 살펴본 宋詞는 晏殊의 「踏莎行」[小徑紅稀]이다. 위의 표시처럼 兩節 구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關東別曲」과 宋詞는 모두 兩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前·後節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고, 내용적으로 계승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말하자면 두 문학의 형식이 양절로 나누어 있지만 시가의 결속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경기체가 後節은 宋詞와 차이가 있다. 宋詞는 원칙적으로 一人唱이었다. 그런데 경기체가의 演唱方式은 多人唱·輪唱이었다. 그래서 宋詞를 고려化하기 위해서, 고려의 곡조에 맞추기 위한, 경기체가의 後節[후렴구]은 宋詞와는 다른 變形體라고 말할 수 있다.

2. 修辭

修辭란 말이나 글을 다듬고 꾸며서 보다 아름답고 정연하게 하는 일, 또는 그런 기술이다³¹⁾. 「關東別曲」과 宋詞는 修辭面에서 유사점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 用典, 對偶를 통해서 양자의 유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30) “오솔길엔 붉은 꽃이 드물어지고, 들은 온통 푸른 풀로 덮이고, 높은 누대의 나무는 녹음이 짙어가는구나. 봄바람은 버들 꽃을 막지 못하니, 눈 오듯 행인의 얼굴을 어지러이 때리는구나. / 푸른 나뭇잎 속엔 피꼬리 숨었고, 붉은 말 밖엔 제비 나는데, 향로의 실연기는 조용히 유사를 따라 떠도네. 한바탕 수심 어린 꿈과 술이 깨니, 석양은 어느덧 깊은 뜰을 비추는구나.” (주조모 지음, 이동향 옮김, 『송사삼백수』, 문학과지성사, 2011, pp.48-49.)

3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1) 用典

用典이란 故事, 典故의 사용, 引用이란 뜻이니 일종의 引用法에 해당된다. 역사적 사실이나 어구를 인용하는 것을 用典, 또는 用事라고 한다. 用典을 사용하면 짧은 어구로 많은 뜻을 전달할 수 있고, 의견 제시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문장을 세련되게 할 수 있고, 작자의 지식을 과시 할 수 있다³²⁾. 따라서 用典은 고도의 세련된 修辭 技法이라고 말할 수 있다. 修辭 水準이 높지 않으면 用典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는 漢文學의 중요한 修辭 手段이었다. 「關東別曲」과 宋詞에도 用典은 매우 중요한 修辭 技法이다. 다음은 「關東別曲」안의 用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桂棹蘭舟 紅粉歌吹

爲 歷訪景 已何如 - 關東別曲」 제2장 부분³³⁾

鏡浦臺 寒松亭 明月清風

海棠路 菡萏池 春秋佳節 - 關東別曲」 제7장 부분³⁴⁾

「關東別曲」 제2장에 “桂棹蘭舟[계수나무로 만든 삿대와 난으로 치장한 배]”가 있고, 제7장에 “明月清風[달 밝고 바람 맑다]”이 있다. 이 두 문장은 宋나라의 詞作家 蘇軾의 「前赤壁賦」³⁵⁾에서 나왔다.

桂棹兮蘭槳, 擊空明兮溯流光. 渺渺兮予懷, 望美人兮天一方. … 惟江上之清風, 與山間之明月, 耳得之而爲聲, 目遇之而成色 … - 「前赤壁賦」 부분³⁶⁾

32) 김성수, 『辭賦文學研究』, 공주대학교출판부, 2007, pp.114-115. 참고.

33) 임기중 외, 앞의 책, p.74.

34) 임기중 외, 위의 책, p.75.

35) 「前赤壁賦」는 宋神宗 元豐5年(1082) 蘇軾이 黃州[지금 湖北省 黃岡]에 流配했을 때 쓴 것이다. 후에 또 하나의 적벽부를 썼기에 이것을 「前赤壁賦」라 한다. 1082년 7월 소동파가 손님과 함께 赤壁에 배를 띄우고 술잔을 나누며 노닐던 것을 읊은 「前赤壁賦」는 운율적 변화가 있는 名文으로 낭만적인 인생관과 아름다운 풍광 및 회고의 정감을 짜낸 서정적인 글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關東別曲」에 있는 “桂棹蘭舟”는 「前赤壁賦」에 있는 구절, “桂棹兮蘭槳”을 변형시켜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고, “明月清風”은 「前赤壁賦」에 있는 구절, “惟江上之清風, 與山間之明月”을 압축시켜서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換骨奪胎적인 방식은 당시 작가들의 상투적인 수법이였다.

宋詞의 작품에서 用典技法을 흔히 볼 수 있다. 다음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遙知新粧了, 開朱戶, 應自待月西廂.

最苦夢魂, 今宵不到伊行.

問甚時說與, 佳音密耗, 寄將秦鏡, 偷換韓香.

天使教人, 霎時厮見何妨.

- 周邦彥, 「風流子 부분³⁷⁾

위에서 살펴본 작품은 周邦彥의 「風流子」[新綠小池塘]의 後節 부분이다. 이 宋詞는 연인을 그리며 괴로워하는 심정을 술회했다. 여기서 周邦彥은 두 典故 ‘秦鏡’, ‘韓香’을 사용했다. ‘秦鏡’은 東漢 秦嘉가 관직에 부임하기 위해 집을 떠날 때, 그의 처 徐淑이 병으로 동행하지 못하자, 사랑의 징표로 거울을 보내주었다는 故事가 있다. ‘韓香’은 남녀가 몰래 정을 통하는 것을 말한다. 賈充의 막하에 韓壽라는 미남이 있었는데, 賈充의 딸이 그를 사랑하여 집에 있는 귀한 향을 훔쳐 韓壽에게 주었다. 후에 賈充은 이 사실을 알고 딸을 그에게 시집보냈다는 故事가 있다.

36) 霍旭東 著, 『歷代辭賦鑑賞辭典』, 商務印書館國際有限公司, 2011, pp.963-964.

37) “멀리서도 아노니 그녀 새로이 화장을 마치고 붉은 문 열어놓고 달 밝은 서쪽 걸채에서 기다리리라. 가장 괴로운 건 꿈에서조차, 오늘 밤 그녀에게 갈 수 없는 것이라네. 문노니 어느 때에나 말해주려나, 좋은 소식과 은밀한 사연을. 또 어느 때에나 진가의 거울을 보내주고, 몰래 한수의 향을 전해주려나. 하늘이여 우리들이 잠시 만나도록 해줘도 좋지 않은가?” (주조모 지음, 앞의 책, p.201.)

2) 對偶

對偶은 서로 對立되는 통사구조나 비슷한 語句를 對稱시켜 文章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다. 대우는 對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문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수사기교이다. 대구에 비해서 글자 數, 平仄聲調, 押韻, 統辭構造 등에서 매우 精緻性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훨씬 형식미가 엄정하다³⁸⁾. 對偶은 중국 고전 문학 중에 흔히 볼 수 있는데, 한국 고전 문학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런 가운데에서 「關東別曲」과 宋詞에서 對偶가 자주 발견되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다음은 「關東別曲」의 對偶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三日浦 四仙亭 奇觀異迹
 彌勒堂 安祥渚 三十六峯
 夜深深 波激激 松梢片月

- 「關東別曲」 제4장 부분³⁹⁾

仙遊潭 永郎湖 神清洞裏
 綠荷洲 青瑤嶂 風煙十里
 香冉冉 翠霏霏 琉璃水面

- 「關東別曲」 제5장 부분⁴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하게 표시한 글이 대우 기법을 운용했다. 글

38) 김성수, 「荀子の 賦篇 考」, 『漢文古典研究』 28輯, 韓國漢文古典學會, 2014, p.330. 참고.

39) 임기중 외, 앞의 책, p.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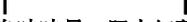
40) 임기중 외, 위의 책, p.75.

자 수, 성조, 통사구조를 모두 정치하게 대우를 이루고 있다. 다음은 宋詞 중에 對偶를 예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織雲弄巧 飛星傳恨 銀漢迢迢暗渡
 金風玉露一相逢 便勝卻人間無數


 柔情似水 佳期如夢 忍顧鵲橋歸路
 兩情若是長久時 又豈在朝朝暮暮

- 秦觀, 「鵲橋仙」⁴¹⁾


 林斷山明竹隱牆 亂蟬衰草小池塘

 翻空白鳥時時見 照水紅蕖細細香

 村舍外 古城旁

- 蘇軾, 「鷓鴣天 부분」⁴²⁾

위의 예는 秦觀의 「鵲橋仙」[織雲弄巧], 蘇軾의 「鷓鴣天」[林斷山明竹隱牆]이다. 살펴본 것처럼 對偶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冰山一角으로 대부분 宋詞 작품에서 많은 對偶를 만날 수 있다.

V. 景幾體歌의 形成

「關東別曲」과 宋詞는 유사점이 많다. 長短句와 兩節은 형식의 유사점이고, 用典과 對偶는 修辭의 유사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유사점을 통해서 양자의 인연을 이미 확인할 수 있었다. 「關東別曲」과 宋詞가 이와 같이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한 비교문학적인 가치가

41) 楊海明, 앞의 책, p.539.

42) 소식 지음, 류종목 역해, 『蘇東坡詞』,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p.462.

있다. 이상의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關東別曲」을 포함한 경기체가의 근원과 形成過程을 추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경기체가의 근원과 形成過程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향가, 속요, 宋詞 등에서 그 뿌리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논리는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경기체가를 고안해내기 전에 사대부들이 宋詞를 지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宋詞가 당대에 가장 성행하고 유행하던 장르였고, 宋詞는 본래 노래를 부를 수 없었던 唐詩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한 詩歌장르였다. 고려의 문인들이 宋詞를 따라 짓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중국의 노래로까지 부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고려의 宋詞 시인들은 가사만을 짓는데 그쳤기 때문에 宋詞 본래의 문학적 정취를 만끽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대체수단으로 가사는 漢文으로, 곡조는 우리 고유의 것으로 노래 부를 수 있었던 경기체가와 같은 시가장르가 필요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宋詞와 유사한 漢文으로 된 가사를 구사함으로써 서민과는 차별화 된 사대부로서의 존엄을 과시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고유의 곡조로 노래함으로써 시가문학적인 만족을 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경기체가가 宋詞에서 형태적 발상을 얻었다면 그 가사의 구조, 수사가 宋詞를 닮았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경기체가가 곧 宋詞가 아닌 부분은 그 독창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위 본문의 4장에서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서 景幾體歌가 宋詞의 影響을 받은 것을 實證할 수 있다고 본다. 양자의 발생 연대, 고려에서 宋詞가 성행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景幾體歌가 宋詞의 影響을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關東別曲」은 「翰林別曲」으로부터 시작된 경기체가의 장르적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가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關東別曲」이 宋詞의 影響을 받은 것을 인정한다면 이후에 경기체가의 형성 원인, 근원, 장르체계 등의 연구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VI. 결론

경기체가 지금까지 27수가 남아있다. 「翰林別曲」과 더불어 安軸의 「關東別曲」은 경기체가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다. 본 연구에서는 宋詞의 고려 유입, 宋詞와 「關東別曲」의 관계를 살피고, 「關東別曲」과 宋詞를 구체적으로 비교했다. 비교를 통해서 경기체가의 근원과 형성과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宋詞는 宋代에 盛行한 장르였다. 韓·中 양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했기 때문에 한국은 오래 전부터 중국 문화를 수용해왔다. 詞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기는 고려 때부터이다. 고려와 송나라의 빈번한 교류사를 통해서 宋詞가 고려에 유입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宋詞는 고려에 유입된 후에 상위문화로서 그 권위를 발휘하였다. 그러나 곡조나 가창 등의 문제는 고려 문인들로서는 소화하기에 매우 어려웠다. 그들은 宋詞의 창작에도 힘을 기울였지만, 그 난관은 경기체를 그 대안으로 고안하게 된 것이다. 경기체는 宋詞의 變形으로, 前節은 그것을 계승하고, 後節에서는 한국의 음악을 살려 後斂句를 덧붙였다.

「關東別曲」의 작가 安軸은 유수의 漢學者로서 宋詞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구체적 비교를 통해 양자의 유사점도 많이 발견된다. 그 중에서 「關東別曲」과 宋詞의 形式과 修辭면에서 양자의 유사점을 살펴보았다. 형식에서 長短句와 兩節을 통해서 양자의 유사성을 파악했다. 특히 長短句는 「關東別曲」과 宋詞의 현저한 유사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兩節에서 宋詞는 前·後節로 부르고, 「關東別曲」은 前大節, 後小節로 부르지만 그 구조는 거의 같다. 그리고 長短句와 兩節에서 「關東別曲」과 宋詞가 유사한 원인은 양자의 음악적 성격이 같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곡조에 따라서 글자의 長短을 결정하고, 말할 때 쉬어 갈 곳이 있어서 兩節로 나누었다. 수사에서 用典과 對偶를 통해서 양자의 유사

성을 파악했다.

「關東別曲」과 宋詞가 이렇게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한 비교문학적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유사점을 통해서 경기체가 근원과 형성과정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비교를 통하여 경기체가의 근원과 형성과정은 宋詞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參考 文獻>

『高麗史』

許慎, 『說文解字』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김동욱, 『국문학개설』, 보성문화사, 1985.

김문기, 「경기체가의 종합적 연구」, 『한국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1.

김선기, 『고려가요의 해석과 이론』, 역락, 2013.

김성수, 『辭賦文學研究』, 공주대학교출판부, 2007.

——, 『生국문학』, 지식인, 2014.

——, 「荀子の 賦篇 考」, 『漢文古典研究』 28輯, 韓國漢文古典學會, 2014.

김영진, 「신발굴 자료: 龜村 李福老의 경기체가-「花山別曲」과 「龜嶺別曲」」, 『한국시가연구』 25집, 한국시가학회, 2008.

김준영, 「경기체가와 속가의 성격과 계통에 관한 고찰」, 『고려가요 연구』, 정음사, 1979.

김택규, 「별곡의 구조」, 『고려시대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75.

박성희, 『한국가요문학론과 史』, 집문당, 1986.

소식 지음, 류종목 역해, 『蘇東坡詞』,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이명구, 『고려 가요의 연구』, 신아사, 1973.

이병기·백철 공저, 『국문학전사』, 일성당서점, 1955.

이병주, 『漢文學史』, 새문사, 1998.

임기중 외, 『경기체가연구』, 태학사, 199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83.

조윤제, 『한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63.

주조모 지음, 이동향 옮김, 『송사삼백수』, 문학과지성사, 2011.

霍旭東 著, 『歷代辭賦鑒賞辭典』, 商務印書館國際有限公司, 2011.

楊海明, 『唐宋詞史』, 新雅社, 1995.

Abstract

*A Study on Formulation Process of Gyeonggichega(景幾體歌) by way of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An, Chuk(安軸)'s 「Gwandongbyeolgok(關東別曲)」 and Songsa(宋詞) / Lee Gyeong Baek**

Gyeonggichega occurred in the late Goryeo dynasty and subsequently matured in the mid-Joseon dynasty. 27 poems of Gyeonggichega remain currently among which An, Chuk's 「Gwandongbyeolgok」 is determined as a representative work, as well as 「Hallimbyeolgok」. This study is intended to clarify how Songsa was introduced to Goryeo dynasty and how the relation of Songsa and 「Gwandongbyeolgok」 had gone, and to the extent of what the origin and formulation process of Gyeonggichega were in such a way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Gwandongbyeolgok」 and Songsa.

Songsa was popular at Song dynasty, it allows us to reason that Songsa's introduction came in Goryeo dynasty. As for writers in Goryeo dynasty, they deemed its rhythm and lyric as adversity. They gave a great attention to creation of Songsa, notwithstanding they designed alternatively Gyeonggichega. Therefore Gyeonggichega, designed by the writers as very similar genre, aimed at creating new works, taking readers to the understanding, approaching to the elegance of Korea proper.

This study takes 「Gwandongbyeolgok」 and Songsa on comparative research in terms of the form and rhetoric, and in case of the form, finds bilateral similarity through long and short phases and before and behind ones, furthermore suggests the musical characteristic they both have causes bilateral similarity, and then in case of rhetoric, seeks bilateral similarity through citation and contraposition.

* Doctor student of KongJu National Univ. / lgb-2527@daum.net

It may have a special meaning that comparative research is made herein and a lot of bilateral similarity is found between Gwandongbyeolgok」 and Songsa. As a result, it is thought that the origin and formulation process of Gyeonggichega were greatly influenced by Songsa.

【Key words】 Gyeonggichega, Songsa, Gwandongbyeolgok, similarity, formulation process

투고일 : 11월 5일, 심사일 : 11월 23일, 게재확정일 : 12월 12일